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560-01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2014

下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財團法人
佛教文化財研究所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일러두기

01. 본 보고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내 寺址의 2014년도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寺址', '寺域'의 개념은 시간적으로 한국 전쟁 이전까지 존속했던 사찰의 유해지 중 지표 상 유물산포구역을 중심으로 잔존 유구와 지형을 고려한 공간적 개념이며,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을 포함한 협의적 의미의 사찰 영역이다. 광의적 의미에 포함되는 寺田이나 기타 공간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추정 가능한 경우에만 조사하였다.
02. 각 시·군과 조사지역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며, 조사분량이 많아 총 2권으로 분권한다.
03. 보고서에 수록된 지형도는 (주)ilnsoft가 제조하여 SKtelecom에서 공급하는 Geovision 랜드맵 Professional(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10-019호)의 자료를 편집한 것이며, 도면 내 별도의 방위표가 없는 한 圖北을 기본으로 한다.
04. 조사구역 좌표 측량은 WGS84계로 운용되는 Garmin社의 Oregon300과 MiTAC Digital社의 Magellan eXplorist610을 이용하였고, Google Earth를 통해 확인 후 수정하였다.
05. 사지 명칭은 寺名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주소명을 사용하나 해당 토지 소유관계 분석을 위해 도로명주소가 아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 주소로 표기한다. 단, 기존에 조사된 경우 당시 보고된 명칭을 따르며, 동일지명인 경우 말미에 번호를 부기한다.
06. 소재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 등록 명칭과 기존 명칭을 따랐다. 단 지방지정문화재 중 띄어쓰기되지 않은 경우는 지역, 명칭을 구분하여 띄어 쓰기 하였다. 또한 동일 명칭 소재문화재 중 여러 점으로 구성된 경우 명칭 뒤에 해당 점수를 숫자로 표기하였다.
07. 보고서 연혁에 수록된 사료는 기급적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원문 확인은 단행본과 한국고전번역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불교문화 종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제공하는 원문 DB서비스를 활용하였다.
08. 현장조사 당시 수습된 기와편은 실측 및 탁본을 실시하여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유물에 따라 크기의 차이가 있어 각 도면 캡션에 해당 축척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09. 사지조사사업 중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은 다음과 같다. 2014년은 여건 상 2, 3유형에 대한 현장조사만 실시되었고, 3유형의 경우 조사 가능한 수량이 초과되어 일부 사지만 조사되었다. 해당지역 내 1, 3(일부), 4, 5유형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2, 3유형에 대해 결과표를 첨가한 현황기록을 수록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재분류된 4유형과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조사가 불가했던 경우, 금년 조사되지 못한 1, 4, 5유형 사지는 별표에 수록하였다.

- 1유형: 해당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지
- 2유형: 사지 내 지정된 문화재가 소재하거나 소재했던 사지
- 3유형: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며, 현존하는 지정되지 않은 사지
- 4유형: 기존조사에서 사지로 보고되었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해 현재 확인되지 않는 사지
- 5유형: 현존하는 불교문화재 중 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조선시대 이전에 폐사된 후 일제강점기에 증창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사찰.

10. 결과표 내 식생유구영향도와 전체 유구상태에 대한 분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식생유구영향도는 사지의 식생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적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지표로 식생이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훼손에 작용한 정도를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영향도가 높을수록 식생과 관련된 환경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사지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식생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식생유구영향도 |

- 높음: 유구 전반이 식생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구가 영향 받는 경우
- 보통: 유구 전반이 식생과 관련된 지형적 원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경우
- 낮음: 유구 전반에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유구 전반에 식생 군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체유구상태 |

- 양호: 유구 잔존 상태가 양호하여 사역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 보통: 유구가 일부 잔존하여 원형 추정은 가능하나 전체적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 불량: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유구가 훼손되어 원형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협조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음성향토전시관
충주박물관
국립한국고통대학교박물관

단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내포문화숲길

대전광역시 下 · 007

충청북도 下 · 029

괴산군 下 · 031

단양군 下 · 091

보은군 下 · 123

영동군 下 · 179

옥천군 下 · 235

음성군 下 · 267

제천시 下 · 321

증평군 下 · 373

진천군 下 · 407

청주시 下 · 461

충주시 下 · 553

조사개요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폐사지 학술조사사업(이후 사지조사사업)”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2011년), 대구광역시·경상북도(2012년), 울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전라북도(2013년)에 대해 실시하였고, 2014년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4년도 조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목록을 검토하고 3월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하였다. 사지 조사 수량은 2010년에 작성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총 1,362개소 중 지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비지정 사지 36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13개소가 증가하여 총 376개소가 현장조사되었다.

조사결과와 정리는 종합결과표를 작성하였으며, 토지의 소유관계는 크게 국유와 사유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각 사지의 원고에는 현황도면을 함께 수록하여 사지의 현 위치와 범위를 표시하였다. 사지 내에 중요문화재가 남아 있거나 주요사지로 판단된 경우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하는 의미로 항공촬영을 실시하였고, 주요 유물에 대해 실측도면을 수록하였다. 또한 조사지역 내 사지 위치에 대한 지정학적 분포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문헌검토는 창건과 중수·중창, 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官撰 및 私撰 지리지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개인문집 등에 수록된 기문도 사찰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활용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발간된 보고서들은 직접 확인한 경우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소재문화재는 현황과 사진자료를 수록하였고, 원 자리에서 이동된 문화재 중 박물관 등 관련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 협조를 통해 해당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2014년 조사진행은 충청남도 서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사수량과 여건을 토대로 팀 별로 담당지역을 분류하여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었다. 조사단은 본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와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문영빈(전 문화재위원)
김봉건(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장용철(안양대학교 교수)
최응천(동국대학교 교수)
양정석(수원대학교 교수)
김철주(문화재청 전문위원)
손영문(문화재청 전문위원)

행정지원

이유범(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과장)
김용복(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
안형순(전 사무관)
강재훈(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주무관)

조사단장

정 안(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사부단장

김영일(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책임조사원

임석규(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조사원

한욱빈, 이현수(이상 유적연구실 팀장)
장현수, 박영민, 안선우, 이소연, 조민수, 박광현,
김현범, 이솔지, 김도원(이상 유적연구실 연구원)

조사보조원

차인성, 윤선아(이상 유적연구실 연구원)

보조원

허준영(유적연구실 연구원)

마지막으로 현장조사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서산 간월암 주지 정암스님, 홍성 석불사 주지 범상스님,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배병선 소장님, 국립부여박물관 한봉규 실장님, 국립공주박물관 김동우 실장님,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조원창 원장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